



인터뷰 제주 출신 첫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

“제주 아픔 기억·성찰하는 공동체로”

“먼저 사랑하라는 실천
신축교안 화해의 성당
교회 밖 의견 경청하며
제주 위한 교회 비전을”



문창우 주교가 천주교 제주교구장 착좌식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취임을 앞둔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출신 사제로서 처음 주교 서품을 받은 때가 2017년 8월 15일이었다. 그로부터 3년여가 흘러 22일 첫 제주출신 제주교구장으로 착좌(천주교 성직자가 정식으로 자신의 직무에 취임)했다. 5대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문창우 주교다.

착좌식에 앞서 지난 13일 제주교구청에서 제주지역 언론사 공동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당시 부교구장이던 문 주교는 주교 서품 직후에 밝혔던 “제주를 향한 교회”를 또 한번 강조했다. “교회는 과연 제주를 위해 죽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제주에 사는 신앙인의 성찰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제주 출신 첫 천주교 제주교구장으로서 소감은.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은 지향하는 데 저에게 작은 몫을 해 나가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 교구장으로서 사목 방향은?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면 서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였다. 사랑의 가치를 신자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전하는 운동을 해나가고 싶다.

▶ 강정마을, 제2공항 갈등 등 현제도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비책을 제시하기 보다 경청을 통해 소통하며 방안을 찾겠다. 이를

위해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 교회 안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천주교 제주교구가 제주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세울 계획이다.

▶ 제주교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예정돼 있는지.

내년에는 신축교안(이재수의 난)이 120주년을 맞는다. 1901년 제주천주교회와 제주사회가 총출력했던 사건으로 그간 여러 심포지엄을 진행했고, 2003년에는 화해선언문을 냈다. 그러한 여정과 연결해 내년에는 심포지엄만이 아니라 관덕정, 황사평, 과거 하느님당 등 아픔이 있었던 곳에 기념비 제막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황사평에 ‘화해의 탑성당’ 조성으로 제주도민과 천주교인들의 총력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역사를 잊지 않고,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늘 변화하고 쇄신해나가는 공동체를 약속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 제주는 내년 탄생 200주년이 되는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 뒤

처음 미사를 거행한 곳이다. 관련 사업이 있는지.

제주시 환경면 용수리 ‘성김대건신부제주표적기념관’을 매개로 표적 재현 행사를 추진하고 바다 정화 활동도 이어갈 생각이다.

▶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는 한편으로 신앙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예전엔 성당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성당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오늘날 성인은 제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교회는 과연 제주를 위해 죽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신앙인들의 성찰이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오랜 역사를 지나오며 수많은 아픔들을 이겨내 주신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날 제주의 아픔을 평화와 사랑, 기쁨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감사함에 보답할 수 있는 여정에 함께 하겠다. 전선희기자

문창우 주교는...

문창우 비오 주교는 1963년 제주시에서 태어났다. 제주대를 졸업했고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 학사와 석사, 제주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제주교구 교육국장,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제주 신성여중 교장을 거쳤다. 2017년 6월 제주교구 부교구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8월 주교 서품됐다. 그동안 신축교안을 통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지역 사회와의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2018년 제주교구 4·3 7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주 지역과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협력,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최초, 가장, 독보적인 화첩 재평가돼야”

세계유산본부·국립박물관
탐라순력도 재조명 세미나

“이형상 기획, 김남길 그린
조선시대 최고의 기록화...
제주 관아 건축 특징도 담겨”

“18세기 초 유학자이며 실학자인 이형상이 기획하고 김남길이 그린 ‘탐라순력도’는 최초, 가장, 독보적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와 가치를 정리할 수 있다.” 20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국립제주박물관 공동 주최로 열린 ‘탐라순력도’의 문화재적 가치와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강영주 문화재청 제주공형 문화재감정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유튜브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순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화인 ‘탐라순력도’가 지닌 가치를 다각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국보 승격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지도학적 특징,

역사적 가치만이 아니라 회화, 건축 등 여러 관점에서 그 가치를 연구하고 드러낸 자리였다.

이날 ‘탐라순력도’의 화폭적 특징과 회화사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 강영주 감정위원은 그간 ‘탐라순력도’의 연구 공백이었던 예술성과 회화적 성격을 밝혔다. 그는 먼저 ‘탐라순력도’에는 ▷각종 성과와 건축물 등을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그린 계화적 요소 ▷산과 해안, 폭포, 동굴, 과일 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실경 산수화적 요소 ▷순력행사나 사냥, 각종 시험과 탐승, 양로연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풍속화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남길이 그린 ‘탐라순력도’를 보고 작가 김남길은 제주목에 소속된 ‘화아장(畫兒匠)’으로 그림 실력이 가장 뛰어난 화공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영주 감정위원은 “‘탐라순력도’는 제작자와 화가, 제작 시기 등이 명확한 조선시대 최고의 기록화이고 속종대 제주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방화원의 독보적인 제주박물관화

첩”이라며 “제주의 전통적인 조형미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제주화의 접법”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희귀성을 모두 갖춘 국보급 화첩이므로, 반드시 재평가되어 그 가치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석하 제주국제대 건축학과 교수는 ‘탐라순력도’ 중 성과 안의 시설물에 나타난 27개의 그림을 통해 3읍성과 9진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록보관소 소장 지적원도(1914, 현 지적도, 발굴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했다).

신 교수는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3성 9진의 시설물 고찰 발표에서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관아건물은 객사, 동헌과 주요 건물, 사창, 병영군 등 여러 건물의 성격과 용도, 건축형식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며 “건축 구조, 창호의 설치 방법과 짜임새, 난간의 구조, 계단설치 방법, 출입문, 담장 등 제주도 관아 건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향후 제주도 관아건물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은빛 풍경에 거듭된 수행의 붓질

조기섭 작가 서울서 개인전
다방 프로젝트 마지막 일정

제주 조기섭 작가가 ‘은빛(銀密): 은빛이 거듭된 풍경’이란 제목으로 서울 마포구 KT&G상상마당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엔 실경들

넘어 심경을 담은 작품들이 펼쳐지고 있다.

출품작은 평면, 영상 설치 등 10여 점이다. 장지에 은분 등을 쓰는 조 작家的 평면 작업은 백색의 공간에 상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은빛의 화면은 종이에 올리고 갈아내는 작업을 반복하며 만들어졌다. 시각적 공간의 깊이를 화면에 담기

위해 선택한 대상은 냇물, 불상 등이다. 미혹의 세계를 헤쳐가는 고요한 수행 끝에는 어렵듯이 부처상이 떠오른다.

작가는 “겉과 멈추어 응시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감을 때 번뇌가 소멸되는 백법(白法)의 순간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2020년 제주 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기획분야에 선정된 ‘다방(多方) 프로젝트’의 마지막 전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현인갤러리 남궁원 초대전

현인갤러리 개관 49주년 기념 남궁원 초대전이 이달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남궁원 작가는 경원대 회화과 교수,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남궁미술관장으로 있다. 초대전에는 ‘버려진 흔적에 생명을’, ‘행복을 노래하는 내 모습’ 연작과 ‘허수아비’ 등이 나왔다. 지난 11일 시작된 전시로 이달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니갤러리 ‘여행자의 방’

제주에 정착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강미숙, 사진가인 가이아드 엘베 부부가 제주시 에월을 유수업 이니 갤러리에서 ‘여행자의 방’이란 이름으로 이달 30일까지 전시를 열고 있다. 이 전시엔 부부가 돌아왔던 지구 곳곳의 인상을 등에 그린 스톤 아트 마그넷 작품 등을 펼쳐놓았다. 코로나 직전에도 1년여 여행했다.

코로나 극복 음악인 토론회

코로나19 제주음악 환경 실태 공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이달 24일 오후 7시 제주시 영평동 아트락 소극장(연선로 156)에서 열린다. 제주음악공동체 제뮤(JEMU, 대표 강신원)가 주최하는 것으로 음악 창작자, 음악 행사와 제작 관련 종사자 등이 현재의 상황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다. 문의 010-2582-3616.

건입동 지역상권살리기 캠페인 2탄 / 김만덕 후예들!!! 건입동 상권을 춤추게 한다

오늘은 건입동에서 밥먹는 날입니다
모임은 건입동에서...

건입동 상권 이용후 인증샷 제출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단, 2020. 11. 30일까지 한함

런닝맨 촬영장소
11월 1일 | 방영
11월 8일 | 방영
· 신지천 변
· 신지물공원
· 김만덕객주

김만덕기념관 전시관 내
김만덕, 그녀의 삶과 정신
2020. 10. 28-12. 5

건입동에는
흑돼지거리, 서부두 횡집거리, 김만덕객주, 수협어시장, 서부두 수산시장 등..... 유명 맛집 · 숨은 맛집이 참 많습니다

건입동주민센터 · 건입동자생단체일동

건입동 주민센터 동장 김현숙	건입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강대선
건입동 주민자치위원장 장유창호	건입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건입동 노인회 회장 황계수	건입동 청년회 회장 손석훈
건입동 마을회장 김창건	건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재일
건입동 통장협의회 회장 박인홍	건입동 지역자율방재단장 윤중보
건입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소신선	건입동 적십자봉사회장 윤봉실
건입동 새마을부녀회장 조두희	건입동 민속보존회장 김광주

2020.11.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수상 국무총리표창

이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제13대 회장)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고문협의회 회장 김영균 외 회원일동

축수상 대통령표창

임봉순
(우도해운(주) 대표) (성산조선(주) 대표)
(재단법인 임봉순장학재단 이사장)

풍천임씨충간공헌과중중 제주중친회 前 회장님께서 제5회 금용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豐川任氏忠簡公鉉派宗中 회장 임보혁 외 종중원일동